



이와테 국제교류

봄
Vol. 76

岩手県国際交流協会機関誌「いわて国際交流」

2014



01-04

특집▶발견이 가득!
일본의 '당연'은 세계의 '깜짝'!?

05-07

스타트! 2014 년도 사업 소개

08

인연 통신

■ 요시다 치카노리 (싱가포르 재주)

뒷표지

찬조회원 입회 캠페인 실시 중!



특집 발견이 가득! 일본의 '당연'은 세계의 '깜짝'!?

◆좌담회편

일본에서, 또는 외국에서 만난 "놀라움"을 주제로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3명을 초청해, 일본에 온 후에 만난 "놀라움"을 모국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신도 일본에 온 이유도 다른 3명은 일본에서 어떤 "놀라움"을 만났을까요?

후반부에서는 이와테에 사는 외국인과 일본인의 다양한 체험을 정리해놓았습니다.

· 프로필

온 라픈 옷도손 씨(Jon Rafn Oddsson)

아이슬란드에서 이와테대학의 교환유학생으로 일본에 온 후 공학연구과 석사과정에 입학해 현재는 미디어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에 온지는 1년 반입니다.



니시다 프아나 씨(Juana Nishida)

남미 파라과이 출신. 청년 해외 협력대로 파라과이에 온 남편과 만나 결혼을 계기로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온지 8년이 됩니다.



게니 케람 씨(Geni Keram)

실크 로드의 요충지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루판 출신입니다. 이와테 대학 박사 과정에서 연구하는 부인과 함께 일본에 체류해 올해로 4년째가 됩니다.



· 일본에 와서 놀란 것은?

게니 경찰관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성이 높은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여성이 혼자 걸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하구나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일본만큼 안전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온 게니 씨가 말한 대로 확실히 경찰관은 많이 보이지 않네요. 저의 고향은 작은 도시지만 일본보다는 많습습니다. 밤은 일본만큼 안전합니다. 다만 주말은 모두 모여 놀거나 술을 마시거나 해서 좀 다르지만요.



교통법규나 매너의 차이는?

프안나 일본에서 운전 할 때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가 라이트를 패싱해서, 뭔가 잘못했나 걱정되었는데 그 뒤 100미터쯤 가니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낮 운전할 때도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켜지 않으면 반대 차선 차가 패싱해 줍니다. 만약 안 켜었을 때 경찰에게 걸리면 주의받아요.

· 일본의 자전거는 어때요?

온 일본의 자전거는 (형태가) 구식인 것 같아요. 미국의 1950년대경 디자인 같아요.

프안나 일본의 자전거를 봤을 때, 색과 디자인에 별 차이가 없어서 시시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같은 느낌이라서.

온 아이슬란드에는 일본의 여성용 자전거 같은 것은 없어요. 스포츠용과 산악용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자전거는 반드시 앞쪽에 (충격 흡수용으로)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요.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지만 헬멧은 안 써요(웃음). 바구니는 안 달려 있어서, 짐은 등에 메거나 아예 안 가지고 다녀요.

· 일본에서 처음 봤다! 라는 것은 있나요?

게니 밤중에 달리는 오토바이의 큰 소리는 일본뿐이려나. 다른 나라에는 없나요?

온 아이슬란드에도 없어요.

프안나 어? 파라과이에는 있어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아, 파아 같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1년에 3번정도요.

온 정해져 있군 (웃음)

게니 일본에서는 경적을 많이 울리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방향전환을 할 때에도 빵, 빵하고 울려요. 일본의 차는 조용해요.

프안나 그래요. 그건 저도 놀랐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어깨결림' 도 처음 경험했거든요. 일본은 파라과이처럼 차가 많아서 모두들 급한가 보다 숨었는데 속도계를 보니 시속 50키로정도라서 "아니, 이거밖에?" 라고 생각했죠. (웃음) 저는 "빨리빨리" 라는 마음이었는데.

• 일본의 화장실에 놀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은 일본식 화장실이요?

프안나 슬리퍼 모양이죠.

일동 맞아요. (웃음)

게니 일본의 화장실은 깨끗해서 기분이 좋아요. 밑에서 물이 나와 닦을 수도 있고. 베이징에서 2년 정도 살았는데 물로 씻을 수 있는 화장실은 본 적이 없어요. 일본은 촌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화장실이 깨끗해요.

은 일본에 와서도 비데는 안 써요. 아이슬란드에는 비데도 동양식 화장실도 없어요. 일본에서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일본의 화장실은 변기가 따뜻하다 못해 종종 뜨거울 정도예요.

프안나 우리나라의 화장실도 변기는 따뜻해지진 않지만, (변기는) 플라스틱이 아니라 고무 같은 재료예요. 그래서 올라간 변기를 밑으로 내릴 때 소리가 안 나요.

은 일본에서 동양식 화장실을 처음 보고 사용법도 몰라서 서양식 화장실을 찾아다녔어요. 그때는 찾아서 다행이었지만 가끔 못 찾을 때도 있어요.

프안나 (지금도 일본에서 동양식 화장실이 사용되는 것은) 박물관 같다고 생각했어요. (웃음)

• 식습관의 차이는?

프안나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일본인은 그다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줄로 알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레스토랑도 대형슈퍼마켓도 있는 걸 알아서 안심했지만 일본인은 모두 말랐어요.

은 확실히 일본인은 날씬해요.

프안나 너무 날씬해요! (웃음)

게니 그리고, 장수들 해요. 날씬해서 나이를 먹어도 걸는게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은 뚱뚱해서 60살, 70살이 되면 무릎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병에 걸려요.

은 그렇지요.

게니 저는 고향의 할아버지, 할머니께 "체중을 줄이

세요" 라고 항상 말하게 되었어요. 일본에 오고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70살, 80살의 사람들도 정말로 건강하게 살고 계시니까요.

프안나 일본의 노인분들은 자전거도 확확 잘 타지요. 위험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요. (웃음)

게니 예전에 (음식점에서) 야채를 씻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당시 가게 사장의 아버님이 94살이었지만 차도 운전하시고 체형도 날씬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90살이 되면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프안나 사는 것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정도 나이까지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돌아가세요. 몸에 신경을 안 쓰거든요.



• 인간관계에서 놀란 점은?

은 전부요. 일본의 인간관계에는 규칙이 많아요. 선배, 후배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선배도 후배도 다 같고 존댓말도 안 써요. 또 일본과 아이슬란드의 차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잘 안해요. 아이슬란드에서는 만약 "이거 마실래요?" 라고 했을 때 마시고 싶지 않으면 "아니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라고 확실하게 말해요. 하지만, 일본에선 "아, 좀..." 이라고 해요. 이런 점은 크게 달라요.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1년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에스인지 노인지 알 수가 없는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면 "어, 괜찮아요" 라고 답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느 쪽일까 혼란스러웠어요.

프안나 오늘 일을 하는데 약간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몸 상태를 물어오면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요. 파라과이였으면 "네, 오늘은 조금 몸이 안 좋는데 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텐데요.

•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런 점이 가장 맘에 든다는 점은?

프안나 안전!

은 응응.

게니 역시 안전하다는 점.



은 그리고 조용해요. 설날에도 조용하고요. 아이슬란드에서는 가족들과 불꽃놀이를 하거나 해서 왓지떨하거든요.

프안나 파라과이에서도 정말 시끌시끌해요! 그래도 즐거워요. 모두 해피, 해피.

게니 축제때도 축제인 것 같이가 않아요. 그래도 되고 싶은 것이 있거나, 공부하고 싶으면 일본에 오는 것이 최고예요.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프안나 책을 빌릴 수 있는 곳과 서점도 많아서 좋아요.

◆양케이트편

후반부에는 거주 외국인, 해외 경험이 있는 일본인들에게 일본에 와서 깜짝 놀란 것, 해외에서 깜짝 놀랐던 것을 물어 봤습니다
이 분들은 도대체 어떤 것에 놀라움을 느꼈을까요?

· 이것이 바로 일본식!?

어디서든 “어서 오세요”라고 말해줘요 (캐나다 출신)
계산대에서 (봉지를 거절하면) 산 물건에 가게의 테이프를 붙이는 것 (한국 출신)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서, 물건 하나하나에 “○○엔, ○○엔”라고 말하는 것에 놀랐어요 (캐나다 출신)

일본 가게의 친절함에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일상대화에서도 일본식이라고 느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족에 대해서 자주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가족에 대해 묻는 습관이 없어서 가족에 대해서 물어오면 바로 생각이 안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 출신)

화제를 고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안 후에 대화를 하면 외국인과 더욱 좋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북국의 이와테라서 들은 수 있었던 답도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이와테만큼 추워요. 그래도 수도를 안 잠궜도 안 얼어요. 실수로 수도를 안 잠궜서 집의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필사적으로 온수를 부어서 녹였어요. 그리고 세탁기가 얼어서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아이슬란드 출신)

서양의 추운 지역에서는 건물 전체를 덥히는 중앙 난방 장치가 주류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방 별로 덥히는” 것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많은 한편, 일본의 겨울에 빼 놓을 수 없는 ‘코타츠’의 편안함에 꼭 빠진 외국인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타츠’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중국 출신)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 화장실의 차이

외국출신분들에게 ‘화장실’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서국제공항이나 JR 역에서 동양식 화장실과 조우.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서양식 화장실을 찾아 다녔어요 (미국 출신)

페루에서는 동양식 화장실은 시골에만 있어요. 대도시인 동경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쇼크였어요. (페루 출신)

라는 의견이. 옛날식의 ‘동양식 화장실’에 당황하는 한편 일본의 화장실의 충실함에 놀라는 것 같습니다.

변기가 따뜻해서 깜짝 놀랐어요. 기능이 너무 많아서 아직 사용법을 잘 몰라요 (호주 출신)

화장실의 차이는 일본인이 해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정용 화장실의 변기 커버를 안 팔아서 일본에서 가져 갔어요. (일본인)

중국의 화장실은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하수관이 가늘어서 화장지는 휴지통에 버리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됐어요. (일본인)

또, 미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등 서양에서는 높은 확률로 화장지의 설치 방향이 일본과 반대 (롤의 아래쪽에서 당기도록) 라서,

화장지의 설치 방향을 미국인 룸메이트와 항상 서로 고쳐 놓았어요. (일본인)

라는 일도.



일본에서는 이 방향이지만



이렇게 설치하는 나라도.

· 해외에 갈 때는 조심!

해외에서 생활하면 일본에는 없는 규칙 차이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현지의 규칙을 알아두면 좋겠지요.

제가 살고 있던 곳(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길거리에서 술을 보이게 들고 다니면 법률위반이에요. 6병짜리 와인 케이스를 들고가다가 경찰관에게 주의를 받아서 처음 알았어요. (일본인)

미국에서는 “NO TURN ON RED” (빨간 신호에는 우회전 금지) 표시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회전 가능합니다. (일본인)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의 나라에 습관에 대해 각 놀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음식점에서는 다 먹은 고기나 생선의 뼈를 접시 위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는걸 자주 봅니다. 중국인 친구에 의하면 한번 입에 넣은 것을 다시 접시에 돌려놓는 게 내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도시나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는 접시에 놓게 되어가는 듯 합니다. (일본인)

한편, 중국에서 일본에 온 사람에게도 매너의 차이는 신경쓰이는 듯 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일본인 친구가 흘린 국물을 바로 닦거나 티슈에 찌질을 놓거나 하는 걸 보고 습관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중국에서는 먹고 나서 그릇을 치우고 나면 한번에 닦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흘러도 그대로 놔둬요. (중국 출신)

"왜 그럴까"라고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감각이나 생각을 알게되면 납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페루에서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루에서는 바늘과 고추는 직접 건네주지 않고 테이블에 일단 두고 나서 줍니다. 직접 건네주면 싸운다는 이야기가 있어 일본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페루 출신)

그 외에도 중국에 간 사람들이 놀랄라는 것이 패트병의 차.

중국의 패트병의 녹차나 홍차는 모두 지나치게 달아요. 패트병의 차가 보통 차와 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랍니다. (일본인)



겉보기는 평범한데 엄청 단 차.

항상 차를 물통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문화라서 느끼는 감각이겠죠. 거꾸로 일본에 온 중국인 유학생은 일본의 패트병의 우롱 차 등이 달지 않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 재미 있는 궁리/생각 여러가지

여러분의 설문지 답 중에는 일본에서도 참고할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버스 앞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라도 버스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오리건 주의 버스

중국의 창춘시에서는 고령자용 IC 버스 카드로 승차하면 운임이 무료가 되고, "지금, 고령의 고객 분이 승차하셨습니다. 자리를 양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라는 차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것을 듣고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중국 출신)

해외로 눈을 돌리면 현지의 다양한 궁리/노력이 보이네요.

· 덤

그 나라나 지역 고유의 화제도 소개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차를 구매할 때 경적 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 울음소리, 구급차 사이렌, 나팔 등의 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

팔라우에는 많은 일본어가 남아 있어서, "도시락, 괜찮아, 미안, 전기, 전화" 등은 일본어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피로를 풀다" 라는 말이 "술을 마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등 독특한 쓰임새로 남아 있는 일본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

영국에서는 텔레비전 광고 시간이 길다! 축구 경기 때 15분 정도 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홍차를 끓이려려고 각 가정에서 일제히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여 전기 사용량이 확 올라 브레이커;전류 차단기가 내려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인)

스타트!

2014년도 사업 소개

◆모두 함께 교류 합시다!

- 세계 공정 무역의 날 in 이와테
일시 : 5월 10일 (토) 11시 ~ 16시
장소 : 아이나 5층 국제교류센터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 ‘국제 협력’을 경험하는 이벤트입니다. 현내의 공정 무역 가게의 상품판매, 공정 무역 커피를 맛 볼수 있는 카페, 공정 무역과 관계가 깊은 나라 분들과의 교류회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정 무역은 개발도상국 등의 빈곤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구입함으로써 일자리를 유지해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 찻토랜드

외국인과 가볍고 친근하게 교류하는 모임입니다. 매년 외국인을 게스트로 초청해 그 나라의 문화 소개와 국제 협력, 관광 등 다양한 테마로 교류합니다. 올해는 국제교류센터와 현내 2지역에서 총 8회 개최 예정입니다. 제 1회는 ‘공정 무역의 날 in 이와테’와 동시 개최합니다.



- 원 월드 페스타 in 이와테
1년중 가장 큰 국제교류 축제입니다. 올해는 11월에 아이나 국제교류센터 및 현내의 2지역에서 개

최 예정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과 만날 수 있는 외국 소개 부스나 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 교류단체의 소개 코너, 국제이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즐거운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나 외국인 여러분들과 함께 개최합니다.

• 아이나 부흥 바자회

아이나 입주 시설과 연계해서 하는 ‘부흥 지원 바자회’에 참가해, 피해지역의 부흥을 지원합니다. 6월 15일 (일), 10월 5일 (일) 2회 개최되며 장소는 아이나 4층 현민 플라자입니다.

◆이벤트의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국제교류센터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또, 홈페이지와 국제교류정보지 ‘jien go’ (격월발행예정)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찬조회원이 되신 분들에게는 정보지 ‘jien go’를 격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 이와테 글로컬 칼리지(이와테 국제 학원)

글로벌한 시점에서 이와테의 국제화, 다문화 공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3회, 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이와테 청년 국제 학원과 병행개최)



• 이와테 청년 국제 학원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해, 현내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어학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글로벌 인재에게 요구되는 기술 향상을 목표로 유학과 워킹 홀리데이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본강좌 (강연회 형식, 이와테 글로컬 칼리지와 공동개최) 글로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에 대해 배웁니다.

개최장소 : 국제교류센터

개최횟수 : 3 회 (예정)

○ 합숙 연수

유학생 등의 외국인과 해외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의 토의를 통해서 해외에 도전하는 의욕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개최장소 : 현내 숙박 시설

○ 유학 세미나

유학 등의 해외 체험의 의의를 생각하고, 유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최 장소 : 국제교류센터



▪ 국제 이해 워크숍

이문화 또는 다문화 공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교 수업과 시민 강좌 등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강사, 조력자를 파견합니다. 본 협회에서 작성한 '국제이해 핸드북'을 활용하며 지역의 외국인과의 공생, 국제 리니어 컬러이더 사업 등 다양한 테마를 다룹니다.

또, 강사, 조력자를 육성하는 연수회도 개최 예정입니다.



▪ 중급 일본어 교실

중급 레벨의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개설합니다. 국제교류센터 등에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등록 & 활용해 주세요! 국제교류 서포터

▪ 일본어 서포터

일본어 회화 연습과 시험 대책 등,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의 의뢰에 따라 일본어 교육 자격과 지도 경험이 있는 분, 회화 연습 상대를 등록되어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 일본어 교실 개최 연수회

지역의 일본어 교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연수회를 개최합니다.

◆강사, 강사,조력자를 파견합니다.

▪ 외국 문화 소개 강사 파견

현내에서 개최하는 국제교류와 외국문화 이해에 관한 행사나 강좌에 국제교류원(CIR)과 해외연수원, '이와테 유학생 대사'(장학금 수혜자)등을 게스트 또는 강사로 파견합니다. 보육원과 학교, 지역의 요리교실 등 다양한 행사와 강좌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언어 서포터

통역, 번역을 통해서 외국인 생활을 서포트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와 운전면허증 수속 등, 생활 상의 다양한 방면에서 통역과 번역이 가능한 분들이 등록해, 외국인과 여러 기관에서의 의뢰에 맞춰 소개합니다.



▪ 인재 활용 네트워크

국제교류, 협력의 경험, 기능을 가진 분과 어학이 뛰어난 일본인, 외국인이 등록하는 인재 은행입니다. 국제교류 이벤트에서 문화 소개 강사와 요리 강좌의 강사, 통역, 번역 등 의뢰에 맞춰 소개합니다.



▪ 호스트 패밀리

본 협회에 호스트 패밀리로 등록해 주시면, 외국인의 홈 스테이와 가정 방문 요청이 있을 때 희망 가정을 모집해, 호스트 패밀리 가정과 외국인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포터 등록 또는 서포터와 강사에게 의뢰할 수 있을까요?

서포터 등록표 또는 의뢰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직접, 본 협회의 창구에서 기입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등록표를 메일 또는 FAX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외국인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일본어 학습과 의료, 복지, 육아 등 외국인 여러분의 다양한 상담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필리핀 출신 분의 상담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담원이 배치됐습니다.

▪ 일반 창구 (일본어, 영어, 중국어)

매일 9시 ~ 21시반

※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 외국어 상담원에 의한 상담

중국어 : 화요일 ~ 금요일 12시반 ~ 18시반

한국어 : 수요일 15시 ~ 17시

영어 (필리핀 분도 상담가능): 목요일 15시 ~ 17시

※상담원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정기 상담일

재류자격(비자)과 일상의 곤란한 일, 고민 등을 행정 수속 전문가가 상담해 줍니다. (예약 필수, 무료)

상담일 : 매월 제3수요일 15시 ~ 18시

◆국제교류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해 주세요

▪ 국내외, 현내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내외에서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와 알람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메세지 보드를 설치해 어학 파트너와 외국어를 가르쳐 줄 분의 모집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에 관한 다양한 물품을 대여합니다.

외국의 도서와 국기, 민족의상, 잡화 등을 대여합니다. 국제교류 이벤트를 개최할 때와 수업, 강좌 등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과 워킹 홀리데이, 국제이해, 일본어 교육에 관한 도서도 다수 대여하고 있습니다.

* 사진은 2013년도 개최시 것입니다.

* 2014년도 사업계획, 예산 등은 본 협회 홈페이지의 '협회의 안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테 현과 '인연'이 있는
해외 거주자분으로부터 현지
분위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연통신”



싱가포르인은 라면을 좋아해!? 의외의 일본 음식 사정

제가 부임한 싱가포르는 지금, 수많은 외국 기업이 지사를 마련하여 세계적인 교통, 무역의 요충지가 되어 있는 국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과 식재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음식도 그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는 일본 식당이 900 개 정도 있고(2013년 2월 현재), 대형 일본계 백화점인 이세탄이나 다카시마야도 있어 일반적인 일본 요리와 일본 음식에 궁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본 음식의 수요는 일본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로성립되어 있습니다. ‘건강, 안심, 안전’과 같은 좋은 이미지로 초밥, 튀김, 일본산 쇠고기, 일본주와 같은 대표 먹거리부터 라면, 타코야키, 닭 꼬치와 같은 서민적인 메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눈을 끄는 것은 진한 돈코츠(돼지 뼈)나 돈코츠와 생선으로 낸 수프를 제공하는 라면집입니다. 이 장르로 일본에서도 유명한 라면집이 싱가포르에 이 몇 년 동안에 속속 지점을 설립, 점심 시간이면 많은 싱가포르인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일본의 TV 프로그램에 따르면 일본에 여행을 온 중국인 여행자에게도 일본 라면이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국민의 약 75%인 중국계 사람들은 국물이 진하고 중국 요리에는 없는 독특한 풍미를 지닌 일본 라면은 신선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인 듯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 라면은 싸도 한 그릇에 약 13 싱가포르 달러(2014년 2월 현재 약 1,040 엔)로 일본과 비교하면 약간 비쌌습니다.

이처럼 일본 음식에 관심이 많아 동남아를 향한 쇼 윈도 효과[=싱가포르에서 팔리는 것은 다른 동남 아시아 주변국에 파급하기 쉬다는 것]를 가진 싱가포르를 겨냥해 특산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지방 자치 단체도 해마다 늘고 있고, 이와테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의 번화가인 오차드 거리에 위치한 이세탄 스카츠점에서는 매년 ‘동북 페어’가 개최돼 이와테현내 기업이 해산물, 과자, 국수 등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페어 중에서도 싱가포르다운 광경이라고 하면, 싱가포르 국민의 구매력입니다. 한 봉지에 6 만엔 정도하는 말린 가리비

조개 관자 등의 상품이 설 연휴 전이 되면 날개 돋힌 듯 팔려 나갑니다. 좋은 상품이면 다소 가격은 비싸도 팔리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이 밖에도 쌀, 쇠고기, 일본주 등 이와테현이 자랑하는 재료의 홍보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싱가포르 국내의 몇몇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항상 이와테현산품이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테현’자체의 지명도를 보면 일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아직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테현에서 파견된 자로서 앞으로 싱가포르에서의 "IWATE" 지명도 향상과 이미지 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2014년 2월 12일 기고

기고자 프로필

요시다 치카노리

2010년 이와테 현청에서 재단 법인 자치 국제화 협회(CLAIR)도쿄 본부에 파견. 2011년 동 일본 대지진의 발생으로 파견을 일시 중단. 이와테현에 복귀 후 종합 방재실에서 지진 재해 대응 업무에 종사. 2012년 4월 CLAIR 싱가포르 사무실로 다시 파견. 주로 일본 지방 자치 단체의 동남 아시아에서의 활동과 국제 교류 사업 지원, 동남 아시아 각국에서의 지방 자치, 방일 여행 세미나 개최, 동북 각 현 및 이와테 현에 의한 특산물, 관광 PR 활동 지원 등에 종사하고 2014년 3월 귀국.



체류국 프로필

나라명 : 싱가포르

면적 : 약 716km

인구 : 약 540 만명
(2013년 9월)

민족 : 중국계 74%,

말레이계 13%,

인도계 9%, 기타 3%

언어 : 국어는 말레이어

공용어로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이세탄 동북 페어 (2013년 12월)



싱가포르 플라이어에서 본 센톤웨이 야경



마리나 베이 샌즈와 머라이언

찬조 회원 가입 캠페인 실시 중!

공익 재단법인 이와테 현 국제 교류 협회에서는 취지에 찬동하고 사업을 받쳐 주실 찬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 캠페인 중으로, 6월 30일까지 가입해 주신 분에게는 멋진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에 대해서

찬조 회비는 현내의 국제 교류 국제 협력, 다문화 공생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됩니다.

연회비(1인당)

- ① 학생 회원 (고등학생 포함) 1,000 엔
- ② 개인 회원 3,000 엔
- ③ 단체 회원 10,000 엔

협회의 소정 납부 용지로 지정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협회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협회기관지
「이와테 국제교류」



국제교류정보지
「jiengo」



■ 회원 특전

-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국제교류정보지 「jiengo」
협회기관지 「이와테 국제교류」
- 알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협회 행사 등의 참가비 우대 할인
· 제휴 매장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 가능
서비스 예: "여행 상품의 합계에서 3%할인" 등



「여행우대맵」



「에스닉 레스토랑 맵」

- 세금상의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찬조 회비에는 특정 공익 증진 법인에의 기부로써 소득세, 법인세상의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 멋진 선물을 드립니다 설문 코너



기관지 "2014 이와테 국제 교류" (Spring Vol.76)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기획 편집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 될, 설문 조사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 중 추첨으로 10분에게 "CafeAfrica 쿠키"를 선물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http://iwate-ia.or.jp/?l=jp&p=4-3-publications-kikanshi#questionnaire>

※2014년 7월 31일(목) 당일 소인 유효
※당선자 발표는 상품 발송으로 대신합니다.

▶ "이와테 국제 교류" 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의 안내

기관지 "이와테 국제 교류"의 다언어 번역판(영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을 이와테 현 국제 교류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6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http://iwate-ia.or.jp/?l=jp&p=4-3-publications-kikanshi>

표지 사진 외국인과의 교류회 "챗토 랜드 in 에사시" (2014년 3월 2일)

■ 국제교류센터

(아이나 이와테현민 정보교류센터 5F)

- 개관일 연중무휴 ■ 개관시간 9:00~21:30
- 휴관일 연말연시

발행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020-0045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리 1-7-1
TEL.019-654-8900 FAX.019-654-8922
E-mail. kikanshi@iwate-ia.or.jp